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본격화

진안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환경부 최종 승인 사업 추진 기반 다져

‘용담호 광역상수도 진안 전 지역 공급’에 나서고 있는 진안군이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상수도 공급망 확보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군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진안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이 최종 승인되면서 진안배수지(광역상수도)에서 월운정수장(지방상수도)까지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진안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최근 환경부로부터 진안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이 최종 승인됐다.

시에는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해 7월에는 인근 지역의 돈사

슬러지 저장고 파손으로 가축 분뇨 액비가 월운정수장 취수원 상류 지역에 유입되는 수질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큰 고충을 겪기도 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승인으로 진안배수지에서 월운정수장까지 비상공급망이 구축되면 백운, 마령, 성수 주민들도 용담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승인된 진안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월운정수장 취수원의 수질 사고 후 복구 완료까지, 배수지의 급수 가능량 및 체류시간 등을 고려하여 진안 배수지에서 월운 정수장으로 용수 공급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도 포함됐다.

전춘성 군수는 “백운, 마령, 성수면 주민들도 용담호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변밀한 검토로 비상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용담댐 제 관리 찾기도 더욱 노력해 우리군이 용담댐 보유지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19일 무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김주성 더불어민주당 무주지역 전북도의원 예비후보가 도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더 큰 행복 무주 만들 것”

김주성 민주당 전북도의원 경선예비후보 출마 선언

19일 무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김주성 더불어민주당 무주지역 전북도의원 예비후보(54)가 도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주성 예비후보는 이날 “무주가 어느지역과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서의 의미를 잃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으며, 급속히 줄어드는 인구로 인해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면서 “이런 급변하는 위기의 시대에는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무주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김주성이다”고 출마의사를 밝혔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지난해 주민들의 삶을 보고 느끼기 위해 무주지역 200여 자연 부락을 모두 걸다녀

어로서상을 정취했으며, 주민협의체위원장 등을 맡아 ‘무주읍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이라는 결실과 170여명의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의원에 당선되면 소중한 자원자원을 복원하여 다시 관광객이 물려오는 활기찬 무주, 소멸위기에 처한 도시를 회생시켜 떠나간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고, 청년농업인이 성공하는 농촌, 귀농·귀촌인들이 선호하는 행복 무주, 종합스포츠타운을 유치하고 다양한 관광인프리를 확충하여 침체된 무주를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김주성 예비후보는 중부대를 졸업했으며, 무주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설 명절 앞두고 분주한 ‘엄마의 손’ 설 명절 연휴를 10여일 앞둔 19일 장수군 시니어클럽 장수침실아식플 사업단에서 명절 선물용 김부각을 만들고 있다. (사진=장수군청 제공)

무주군, ‘건강가득 소득농업’ 행복 농정 실현 주력

무주군이 올해 ‘건강가득 소득농업’ 영농기를 마련으로 행복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농정·농산·원예특작·축산·방역 5개 분야에 총 3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인복지 및 역량강화를 위한 농정분야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청년농업인육성과 농촌일손돕기에 68억 원을 투자해 농업인 복지 향상과 일손부족을 해결함으로써 농가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친환경 농산물 확대와 농작업 편

의개선 및 노동력 해소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산분야에서는 212억 원을 투입해 밭값 농기계 지원과 천연비료, 공익 직불제 및 농민수당을 지급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어 군은 원예특작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후변화대비 시설하우스 및 천마산업 지원 등 46억 원을 투입해 고소득 특화작물 육성 발굴과 조직화 규모화로 농가 경쟁력을 강화시켜 농사소득으로 연결시킨다는 복안이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증대를 통한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분야에서는 고품질 한우생산 기반 구축 및 배넷소 지원 등 24억 원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제로화를 위해서 가축방역분야에서는 가축방역약품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을 위해 15억 원을 지원해 청정 무주를 실현하기 위해 역점을 둔다.

/무주=전문선기자

장수군, 농작물 재해보험·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장수군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재해보상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군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는 3,912명,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자는 6,277명으로 전년에 비해 가입자 수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군은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59억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작물 재해보험 및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95%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가는 자부담금 5%만 납부하면, 적은 비용으로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작목별 신청기간에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수=교관호 기자

무주 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 직거래장터·코레일유통 역사판매

무주군이 민족 고유의 설날을 맞아 청정 고향지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주)코레일유통 농·특산물 판촉행사가 열린다.

이번 군청 후정에서 마련된 설맞이 직거래장터 매장은 사과를 비롯해 천 마상화차, 꽃감, 흠죽, 참기름과 산물유과, 울무, 팥, 반햇소 떡갈비세트, 도라지청 등이 판매·전시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